#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 자료관

##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미나마타병의 교훈～

미나마타병 자료관은 미나마타병을 풍화사카지 않고 공해의 원점이라고 말해지는 미나마타병의 귀중한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고 후세에 미나마타병의 교훈과 경험을 전하는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의 피해자들이 받은 비참한 공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나마타병의 역사와 현황, 미나마타병환자가 받은 아픔이나 차별 등의 체험을 전시하고 또 증언인의 강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4 년 1 월의 개관이래 이미 68 만명이 이용하고 일본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 175 개국 및 지역에서 공해나 환경, 인권학습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소:53 Myojin-cho Minamata-shi
KUMAMOTO 867-0055 JAPAN
◎전화:+81-966-62-2621
◎팩스:+81-966-62-2271
◎URL:http://www.minamata195651.jp
◎Ｅ-mail:mimuseum@eos.ocn.ne.jp

◎개관시간:오전 9 시-오후 5 시
※단 입장은 오후 4 시 30 분까지
◎휴관일: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연말연시 (12/29～1/3)
◎입관료:무료
◎주차장:무료(대형버스 15 대,보통차 272 대)
＊장애인 전용주차장 있음

■관내경학 (30~60 분)
단체 경우는 사전예약이 필요
■증언인 강연 (약 60 분)
미나마타병환자의 수난의 체험 등을 직접 드을 수 있습니다.
(10 명이상의 단체만 무료 **※예약이 필요**)

**미나마타병 메모리얼**
미나마타병의 희생에 대하여 기도하고 공해의 비참한 실태과 생명의 존엄을 후세에 전하고 다시 미나마타병같은 비극을 되풀지 않는 것을 다지는 곳입니다.、미나마타병 자료관에 병설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길
■자가용
·미나미규슈자동차도 아시키타 나들목에서 30 분
·규슈자동차도 구리노 나들목에서 약 70 분
·규슈자동차도 구마모토 나들목에서 약 120 분
·이즈미 시에서 미나마타시까지 약 20 분
■철도(신칸센 이용)
·JR 하카타 역에서…신칸센에서 65 분
·JR 구마모토 역에서…신칸센에서 26 분
·JR 가고시마 중앙 역에서…신칸센에서 33 분
※가까운 역에서 미나마타병 자료관 까지
*규슈신칸센 신미나마타역에서 자동차로 15 분(6.3km)
*히사쓰오렌지철도 미나마타역에서 자동차로 7 분(2.5km)

**미나마타병이란** 짓소 미나마타 공장이 시라누이 해에 흘린 공장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수은에 의해서 어패류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메틸수은중독에 걸린 공해병입니다.

1956 년 미나마타시에서 원인이 모르는 병의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으로서 공장폐수가 의심되어 폐수는 멈출 수 없이 계속 흘리고 일본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는 속에서 시라누이 해에서는 미나마타병의 피해가 확대해 버렸습니다.
미나마타의 바다는 물고기가 솟아나는 정도로 풍요한 바다였습니다. 그러한 바다의 혜택에 사람들은 한가로운 살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이 모르는 병에 걸려 버리고 만족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이 잇따라 돌아가셨습니다. 또 일손을 잃고 남긴 가족이나 어부의 생활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배속에서 수은에 상해서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의 발생이라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당초 환자는 기병이나 전염병이라고 오해를 받고 ‘ 동네를 걷지마. 전염된다’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짓소의 기업도시라고 불린 미나마타에서는 짓소를 옹호하고 환자를 소외하는 풍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시는 시민인 환자들의 고통을 눈앞에 하면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환자와 그러지 않는 시민 사이의 대립 등 미나마타는 혼란하고 사람 등의 유대까지 파괴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풍토병이나 전염병과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취직이나 결혼이 안되고 농산물이나 미나마타의 이름에서는 팔 수 없는 등 미나마타를 피하는 풍조가 퍼졌습니다.
1968 년 공장에서 폐수가 흘리게 않게 되었지만 미나미타병의 발생이 공식으로 확인된 후 이미 12 년 지났았습니다. 같은 해 미나마타병은 짓소 미나마타 공장이 원인으로 발생은 공해병임을 정부는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건강을 빠앗긴 피해자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짓소나 국가,현을 상대로 일본각지에서 재판이나 자주교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죄와 구제를 요구하는 필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또 미나마타병의 인정될 수 없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미인정환장의 구제도 문제가 되어 인정기준이 엄격하다고 인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갔습니다.
재판에서 짓고 책임은 명확히 되었지만 인정기준이나 폐수를 규정하지 않고 피해를 확대시킨 행정책임을 둘러싸고 재판은 장기화하고 경직된 상태가 계속했습니다.
1990 년 재판소는 피해자가 고령화하는 속에서 빠른 구제를 의해서 화해밖에는 없다는 권고를 내고 이를 받고 국가가 해결안을 제시한 것은 1995 년이었습니다.
거의 환자단체는 살아 있는 사이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용없이 재판을 취하하고 이 해결안에 동의했습니다. 괴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유일 간사이 소송의 원고들은 끝까지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최고재판소까지 싸우고 2004 년에 국가,현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많는 눈물이 흘렸지만 잃은 생명, 건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 잘못을 고친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고 선철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나마타병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미나마타로서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